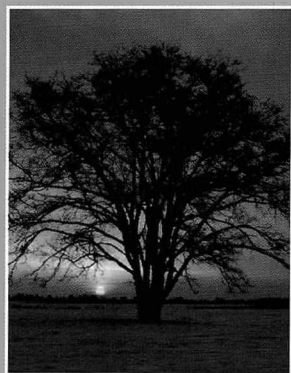


Contents

December 2007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년 12월호(총권 136호)

- 02 _ 축산단신
- 04 _ 기획특집
2007 등급판정 결과 우수농가 표창
- 06 _ 전문가심층분석
2008년 1/4분기 축산관측
- 08 _ 등급판정 우수농가 탐방
오성그린농장-김상준 농가
- 10 _ 축산식육상식
겨울철 가축관리 요령
- 11 _ 소·돼지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
- 13 _ 등급판정 통계자료
11월중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18 _ 행사 이모저모
- 19 _ 등급판정 소식



표지사진 '설원사이로 지는 해'
서울지역본부 차장 이승근 작

‘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년 전국 확대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처럼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68만 마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한우 및 육우 200만 마리로 확대 시행된다. 소 개체식별번호 부착, 사육단계 유전자(DNA) 검사, 농가 지도 및 홍보 등에 내년에만 1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유통경로가 투명해져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고기 · 닭고기도

‘음식점원산지표시’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률은 15일 후 대통령 공포에 이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에 한정됐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내년 12월 중 · 하순경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영업장의 범위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축산업계, 특히 양돈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U]

돈육 수출 보조금 지급 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돈육 수출 부진을 털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돼지고기 수출 시 지역에 관계없이 세계 시장과 EU시장에서의 가격 차이 만큼을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미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과 경쟁하는 유럽 양돈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EU의 돼지고기 수출은 최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면서 1분기 42만 4천여 톤으로 1년 전 보다 12% 감소했다.

[대만]

생산 이력제 돈육 출시

대만도 생산 이력제 돈육이 출시됐다. 최근 대만 농민위원회는 따르면 지난달

이력제 적용 돼지고기가 농산물 검증관리법을 통과, 지난 2일 전국 20개 대형매장에 첫 선을 보였다는 것이다.

2년의 준비과정을 거친 이 시스템은 돼지의 출생, 이동, 도축, 포장, 운송 등 전 과정을 담은 개체식별번호를 돈육 상표에 표시,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5개 업체에서 이력제 인증을 받은 상태로 추가로 5개 돼지고기 생산 업체와 30개 양돈농가에서 이력제 참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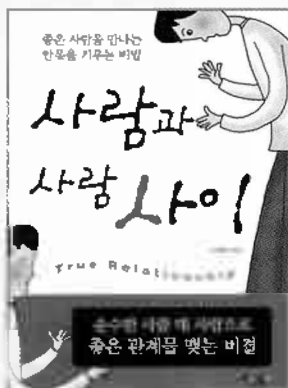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4일 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사전차단 차원에서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선물세트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폐인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쇠고기·돼지고기 부위 세분화농림부 '식육부위·등급 및 종류별 구분법' 시행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위가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쉽게 세분화됐다. 농림부는 식육판매업소가 대부분할 부위 명칭 이외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를 세분화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10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는 쇠고기의 경우 갈비를 3개 부위로 세분하는 등 11개의 소분할 명칭을 신설해 모두 39가지로 확대하고 돼지고기도 5개 부위를 추가해 22가지로 늘렸다. 특히 수입육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 명칭을 표시토록 했으며 여러 부위가 섞여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는 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1등급·1등급·2등급·3등급·등외(E등급) 등으로 표시토록 했다.

문화산책 - 사람과 사람 사이



• 저 자 : 고철중
• 출판사 : 다산북스

순수한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 기술적 인간관계에 지친 독자들에게 바치는 책

흔히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저런 배경이 있는 사람은 저렇다 하고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고생도 해본 사람이 낫다라든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배울 점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그렇다. 자신의 공식에 맞춰 사람을 대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겪어왔을지언정 일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낀다. 인간관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더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런 독자들에게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고 상처받지 않고 갈등 관계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힌트를 준다. 누구나 쉽게 오류를 범하는 선입견들을 뒤집어봄으로써 한 사람을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로 보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량과 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